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신규 모집

유망 강소기업 3곳에 3년간 5000만원 · 강소기업 1곳에 1년간 3000만원 지원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경제를 선도할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 등을 신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과 강소기업을 지원, 육성해 세계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기업이 군산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규 모집은 3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로, 이후 서류, 현장실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유망 강소기업 3개사, 강소기업 1개사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군산시에 본사(공장)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하고 창업한 지

3년 이상,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하는 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이 600억원 미만인 기업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 기업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 가점 항목 등을 추가하였다.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 및 공정개선 △국내외 마케팅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비 5,000만원을 3년간 지원받는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도 4%까지 확대 지원받게 된다.

강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 개발(R&D)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비 3,000만원을 1년간 받게 된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2019년에 도내

최초로 시행한 후 올해까지 7년째 추진해 온 사업을 통해 기술경쟁력과 역량을 보유한 강소기업을 발굴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맞춤형 육성 및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기업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을 바탕으로 관내 기업의 내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신성장산업과(☎063-454-2745) 또는 전북산학융합원(☎063-472-28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는 전북산학융합원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시공무직노조, 임금·단체교섭 상견례

임금 현실화 · 복리후생 · 근로환경 개선 등 논의예정

익산시는 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익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과 임금·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개최했다.

이번 상견례는 양측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자리로, 향후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한 소통의 첫걸음으로 마련됐다.

이날 정현을 익산시장과 공무직노동조합 김민철 위원장, 류명훈·김경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와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이번 협상이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고충을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맞손’

시농업기술센터 · 군산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12~21일 신청 접수

특수건강검진비 중 자부담금 10% · 일반검진 비용 20~30% 감면



군산시농업기술센터와 군산의료원이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중 자부담금 10%를 군산의료원이 지원하여 여성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부담금 지원 외에도 특수건강검진 일반 검진 비용(희망자) 중 20~30%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여성농업인 단체를 위한 건강강좌 프로그램도 개설된다.

시는 이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 예방 및 조기 발견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진행되며,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 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 중독 검진 항목과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의 예방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6일 군산의료원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황관선 소장 △조준필 군산의료원 원장 △여경례 한국여성농업인 군산시 연합회 대의협력부회장 △배지영 생활개선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특수건강검진은 51~70세(1955년 1월 1일~1974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흡수 해에 출생한 여성농업인이다. 단,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나 공동경영주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

신청은 12일부터 2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 다이로움택시 앱’ 서 카드 자동결제 시... 10% 환급

1인당 월 최대 2만원 한도... 결제일 기준 다음달 25일에 지급

익산시는 이달 7일부터 다이로움택시 앱에서 다이로움 카드로 자동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다이로움 포인트로 지급한다.

기존에 택시요금 1만원을 결제하면 다이로움택시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

는 500원이 적립됐지만, 7일부터는 1,000원의 다이로움 포인트가 지급돼 다이로움 가맹점서 사용할 수 있다.

다이로움택시 앱에서 다이로움 카드로 자동결제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월 최대 2만원 한도로 결제

일 기준 다음달 25일에 익산다이로움 앱으로 지급된다. 다만, 다이로움 택시 앱을 통한 자동결제가 아닌 직접(현장) 결제 시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시는 다이로움 충전 인센티브 10%를 포함하면 총 20% 할인 효과가 발생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나무 나눠주기 사업’ 추진

스파트필름 · 멜라니고무나무 · 홍콩야자 배부... 10~14일 접수

시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고, 배부는 오는 28일에 이뤄진다.

배부 식물은 공기 정화 효과가 뛰어난 △스파트필름 △멜라니고무나무 △홍콩야자로 세대당 3주씩 제공된다. 나무 나눠주기 사업은 시민들이 작은 나무 한 그루를 기르며 건강한 환경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기정화 식물은 미세먼지와 유해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30개 법인 선정

최근 4년간 3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대상

익산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30개 법인을 선정하고, 기업 친화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1,000만원 이상의 세액을 비과세·감면받은 법인 중 ‘익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

서 심의·선정된 30개 법인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분 서면조사로 진행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지방세 탈루·은닉 법인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산림교육프로그램

유아숲체험 · 숲해설 운영

익산시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산림교육 프로그램인 ‘유아숲체험원’과 ‘숲해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기·수시반 단체를 모집한다.

유아숲체험원은 단순히 놀이터를 넘어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숲속 교육 공간이다.

시는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8,500만원을 투입해 옹포 곰돌이 유아숲체험원과 금마 서동공원 유아숲체험원에 트리하우스, 네트 놀이대, 전망데크, 통나무 건너기 등을 새롭게 설치했다.

숲해설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다. 전문 숲해설가가 △원광대학교 수목원 △옹포 산림문화체험관(최북단 녹차밭 일원)에 배치돼 연령별, 계절별로 색다른 숲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저장강박 의심

위기가구 전수 조사 실시

군산시가 저장강박 의심·위기가구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10일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2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 동네 홍보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진행한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위기 상황 대응관리 체계 구축 △저장강박 가구의 위기 정도 진단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조기 개입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통계가 부족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나타난 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당을 계속 이어 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